

경상북도 BT 산업단지 가시화

안동시, 바이오 전진기지로 집중 육성 ... 벤처기업 활성화 도모

2004년부터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이 본격 시작된다.

경상북도와 안동시에 따르면, 경상도 북부지역에 풍부한 생물 자원을 활용하고 생물산업(BT)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3년 말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안동시 풍산읍 매곡·괴정리 99만㎡에 경북 바이오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실시설계를 한 뒤 2008년까지 1, 2단계로 나누어 단지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850억원을 들여 조성할 바이오산업단지에는 바이오벤처집적단지(49만5000㎡)와 지방산업단지(49만5000㎡)가 들어선다.

더욱이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공단에 농업과 식품, 화학 등 바이오산업, 환경·문화산업, 저공해 일반 제조업을 유치하는 등으로 안동을 바이오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4/01/09>